

최연의 산 이야기 <33> 소백산 1



사람을 살린다는 소백산. 풍기읍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사람을 살리는 소백산이여

소백산(小白山)은 남사고(南師古) 선생이 산을 향해 넋죽 엎드려 절하며 “저 산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라고 찬탄을 금치 못했던 명산으로서, 우리나라 명산 중에서 가장 온화하고 아름다운 기운(氣運)을 가졌다고 평했다.

소백산은 중턱 이상에는 바위가 거의 없는 육산(肉山)이다. 높은 곳에 바위가 없으니 산봉우리들은 생김새가 부드럽고 살기(殺氣)가 없다. 소백산은 양백(兩白)의 하나인 태백산(太白山)보다 100여m나 높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세는 훨씬 장엄하다.

백두대간 상의 소백산의 동북쪽 끝 봉우리인 신선봉에서부터 남서쪽 끝 봉우리인 도솔봉까지 주능선의 길이가 50여 리에 이르며, 갈라져 나온 작은 산줄기 사이로 형성된 골짜기들도 매우 깊고 깊어 30여 리가 넘는 계곡들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신산(神山)’ 또는 ‘성산(聖山)’으로도 불리며 특별히 신성시 되어온 9신산(神山)이 있는데, 소백산을 비롯하여 묘향산,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속리산, 치악산, 용문산이다. 이들 9신산은 모두 산봉우리 중에 ‘비로봉(毘盧峰)’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로(毘盧)는 진리 그 자체인 법신불(法身佛)을 의미하는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홉 개의 신성하고 성스러운 산들은 바로 부처님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듯 국토의 지명(地名)과 산봉우리에 부처님의 사상을 투영하는 불국토 사상(佛國土思想)의 한 단면은 소백산의 산봉우리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소백산의 연봉(蓮峰)들은 비로봉, 연화봉(蓮花峰), 도솔봉(兜率峰), 원적봉(圓寂峰) 등으로 그 이름부터가 부

처님 세계임을 암시하고 있다.

비로봉에는 진리의 본체인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연화봉은 부처님이 앉아 계신 연화대좌(蓮花臺座)이고, 도솔봉은 도솔천 내원궁(內院宮)으로서 다 음에 오실 부처님이 머물고 계신다. 원적봉은 삼라만상이 진리와 합일되는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소백산은 ‘진리의 본체인 법신불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미래의 부처가 될 수행자들이 진리와 하나 되려고 수행을 하는 곳’인 것이다. 그런 연유인지 몰라도 소백산에는 불도(佛道)와 선도(仙道)의 많은 수행자들이 찾아 들었다.

화엄사상(華嚴思想)을 널리 전파한 의상대사(義湘大師)는 화엄사찰인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하고 소백산과 태백산을 오가며 많은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래서인지 소백산 자락에는 유서 깊은 수행도량(修行道場)이 많다.

우리나라의 선도(仙道)는 크게 우도방과 좌도방으로 나누는데, 우도방은 단전호흡을 통해 우주의 참 기운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수련법으로 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좌도방은 특정한 주문을 외어서 정신을 집중시켜 우주의 진기(眞氣)와 합일에 이르려고 하였는데 주로 소백산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불가와 도가를 망라하여 참 삶의 길을 찾아서 완성된 삶에 이르러자 많은 수행자들이 찾아든 소백산은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산’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백산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중간 허리를 서남쪽으로 가로지르는 백두대간은 영남과 호서, 호남을 나누어 놓았

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으로 소백산은 삼국시대 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었고 한국전쟁 때도 많은 젊은이들이 스러져간 역사의 현장으로 ‘화합과 상생’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의 분수령으로 그 역할을 감내해야만 했던 민족의 한이 서린 비극의 산이기도 했다.

풍수학에서는 청룡과 백호의 양쪽 산줄기가 뽀족하게 뻗어나와 서로 겨누는 형상이면 형제간에 처절하게 싸운다고 하는데 소백산의 산세가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같은 산이라도 수행자들이 머물던 자리는 사뭇 다르다. 그곳에는 뽀족하고 험한 산줄기들은 보이지 않고 후덕하고 부드러운 산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줄기들은 ‘처절한 고통’과 ‘지순한 평화’의 두 모습을 지니고 있다.

산은 인간의 신산스러운 삶을 보듬어주고 압담한 현실 속에서도 한줄기 희망을 잃지 않게 하기에 고난이 닥친 사람들은 ‘산에 들어(입산)’ 산사람이 되어 후일을 기약하는가 보다. 일본 강점기에도 학병을 피해 산에 든 젊은이들과 일제의 경찰에 쫓겨 소백산에 든 사회주의자들도 많았다. 그들은 소백산에 숨어 살면서 스승을 만나 선도의 수련을 했다고 한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그들 중 상당수가 큰 깨달음을 얻어 도력이 꽤나 높았다고 하는데 해방이 되자 대부분 산에서 내려와 월북을 하였고 한다. 남한에 남은 이가 알려진 바로는 거의 없는데 천태종을 연 상월조사가 뛰어난 도력으로 소백산 아래 구인사를 개창하여 많은 중생들에게 감로의 법을 들려주었다.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봄을 바라보는 늦가을 풍경 넷

하나.

씩이 나와 땅에 찰싹 달라붙은 냉이를 아내가 캐어 국을 끓였다. 콩고물을 입혀서 된장을 풀어 끓여낸 국을 먹으며 봄을 생각한다. 냉이는 이미 겨울을 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납작 땅에 잎을 붙이고 뿌리는 밑으로 쪽 뻗었다.

어떤 추위가 와도 견딜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냉이의 갈색빛 감도는 푸르름에 담겨 있다. 무엇도 냉이의 저 단단한 각오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냉이의 기운은 겨울보다 차갑다.

둘.

심은 지 십여 일 지났을까? 밀싹이 흙을 뚫고 올라왔다. 뽀족뽀족 가느다란 푸르름이 하늘을 찌르며 발돋움 시작했다. 밀을 심고 싶은 마음이 싹튼 지도 3, 4년 정도 된다. 바람에 일렁이는 밀을 보고 싶었다. 단 한 줄이라도 수확을 해서 직접 빵이 수제비라도 해먹고 싶었다. 하이얀 밀가루가 아닌 누르죽죽한 밀을 만나 그 맛을 보고 싶었다.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가지개를 쳐며 일어나는 밀의 푸르름을 바라보면 왠지 더 살고 싶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작년에 밀씨를 얻어 심어 올해 수확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도 심고 싶은데 씨앗 조금만 주지.’ 주저없이 얘기한 것이 이 늦은 가을에 새싹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내년에 수확을 하게 된다면 밭 한 포기 정도는 밀밭으로 만들 씨앗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빈 밭을 바라보니 밀대의 푸르른 물결이 넘실거린다.

셋.

추위를 피해 방에 들어놓은 차나무에 꽃이 피었다. 머리를 숙여 바라보니 은은한 향내가 코를 간지른다. 여름을 거치면서 허연 꽃망울이 가지마다 방울방울 맺히더니 방에 들어놓은 며칠 뒤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노란 수술들이 고개 숙인 꽃 안에서 활짝 웃고 있지만 벌이나 나비는커녕 파리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꽃을 바라보는 내가 하전하다.

3년 전이었던가? 차밭물관에 가서 다기 구경도 하고 설명도 듣고 따라주는 차도 한 잔 마신 뒤, 행사를 했을 때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거라며 관장이 손바닥 만한 화분에 심겨진 차나무 한 그루를 건넸다. 좀 더 큰 화분에 옮겨 심고 작년 겨울을 방에서 보낸 뒤 올해 봄부터 쪽쪽 크더니 제법 나무다운 형태를 갖추었다. 갓 난야기에서 아잠야잠 걷는 아이가 됐다고 할까?

꽃은 조용한 가운데 스스로 피었다가 스스로 진다. 외롭다고 해야 하나. 쓸쓸하다고 해야 하나. 꽃을 피운 나무에 그 어떤 곤충 한 마리도 날아들지 않으니 처량한 모습이다. 그런 중에도 피었던 꽃은 떨어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난다.

어쩌라, 푸르텡텡한 잎은 냉랭하여 표정을 읽을 수 없고 활기 또한 느껴지지 않는다. 때와 장소를 잘못 만났으니, 꽃이 예쁜들 무슨 소용인가? 피고 또 핀들 무슨 소용인가? 다만, 조용하고 쓸쓸한 가운데 피고 지는 것이 너 뿐만이 아님을 생각할 뿐이다.

넷.

가을밤이 깊어갈수록 고라니의 울음소리가 붉게 다가온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나의 이불 속까지 파고들며 마음까지 흔든다. 어둠을 갈기리 찢는 한편, 더욱 깊은 어둠의 수렁 속으로 밤을 끌어들이며 고라니는 운다. 골짜기 깊은 곳에서 울다가 울다가 내가 사는 집 근처까지 와서 ‘케익 케익 케익’ 울다가 집 앞 도로에까지 와서 울다가 산 아래로 내려가며 울다가 다시 골짜기 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려가며 운다.

어둠까지 붉게 물들이며 온밤 내 울면서 산속을 헤매는 고라니 앞에 쌓이고 쌓인 어둠의 높이는 얼마쯤일까?

이윽고 제 짝을 찾았는지 오늘 밤은 고요하건만, 맞은편 산 어디에서 아련히 들려오는 또 다른 울음소리가 있어, 가을은 여전히 겨울 너머를 훑쳐보며 머뭇머뭇 발을 옮기질 못한다.침을 맞을 줄 아는 새, 정병 검다고 말할 수 있는 새.

시인

불교달력 · 불교용품 · 불교서적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p>불교용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향, 주목, 염주, 염주주머니 양초, 향, 다포, 약세사리 4·8용품, 등표, 전선·전구 공단품, 바림등, 만월등, 청사초롱 봉축카드, 생일카드, 프린트지 예수재용품, 영가웃, 탑다라니 축원카드, 용선, 위패, 부적 	<p>불교서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경책, 사경지, 한지백팔사경 우리말사경책, 제브라붓펜 금강경전세트, 불자수첩, 병풍 금강경, 법화경, 지장보살본원경 예불천수경, 천지팔양경, 보문품 백팔대침최종, 불살아미타경 한지공책, 사경공책, 권선문 자비도량참법, 성불합시다 	<p>불교달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6월(大) (30.5×31.0cm) 12월 (25.8×26.5cm) 차절이 (9.0×15.5cm) 미니 (8.9×9.5cm) 다이러리 (9.5×13.4cm) 탁상 (26.2×19.0cm) 한지 (30.0×45.5cm) 행복으로 가는 길(18.1×20.0cm)
<p>금지경전 세트 (3권+주머니) @25,000원(10세트이상)</p> <p>경면주사금지 능엄신주 @7,000원(10권이상)</p> <p>금강반야바라밀경 @1,500원(100권이상)</p> <p>공단품(8cm) @3,000원(96개이상)</p> <p>바림등(8cm) @3,000원(96개이상)</p> <p>PVC 침계등표(100매) @20,000원</p> <p>릴라등표(100매) @6,000원</p> <p>신요장구대다라니(한글) @14,000원(10권이상)</p> <p>경전사경 제26호</p> <p>한지 108사경 (4종) @14,000원(10권이상)</p> <p>금강경 한문사경 @3,500원(50권이상)</p> <p>반야심경 한문 탐사경 @150원(500장이상)</p> <p>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p> <p>금강경 독송용 @2,400원(50권이상)</p>	<p>무연무취항(1케이스) @12,000원(10케이스이상)</p> <p>일반밀대(1Box 70개) @105,000원</p> <p>파라핀양초(1.8ℓ 12봉) @53,000원</p> <p>주목 백팔주 @8,000원(20개이상)</p> <p>불자수지독송(릴라) @500원(200부이상)</p> <p>생일카드 @300원(1,000장이상)</p> <p>금강경탑다라니 @150원(600장이상)</p> <p>삼베심재품이 @600원(200개이상)</p>	<p>12월 1,000원 (1,000부 이상)</p> <p>8호 관음도</p> <p>16호 부처님의 꽃</p> <p>14호 반야동자</p>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적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한별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한별출판문화사